

教育競爭과 大學



清州師大 學長 李 東 熙

I. 休講의 멋

한때 大學의 멋은 休講에도 있었다. 청자빛 하늘 아래 라일락 꽃 향기가 교실에 스며들 때 여거저거 모여 앉아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시간 반이나 넘어서야 유유히 들어오셔서 간단히 서론만 말씀하시곤 30분도 안 되어서 뒤도 돌아보시지 않고 뚝뚝하게 교실을 나가시는 그 교수님이 오히려 존경스러웠다.

“그렇지! 교수는 공부하는 방법만 교육하는 것이고, 공부는 나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잔디밭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다음 시간을 기다리며 志友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厚德하신 교수님의 시간이다. 항상 모이는 학생은 데려섯 명뿐이다. 그래서 그 분은 가끔 낙산다방에서 커피도 사 주시면서 강의를 하셨다.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큰 난리가 난다. 백여 명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때문이다. 수강신청만 하고 강의에 不參했던 학생들이다. 그래도 교수님은 아무 표정도 없이 일일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신다. 그 교수님은,

“대학은 출석도, 시험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가 중요합니다.”

라고 항상 강조하셨다.

그런가 하면 어느 교수님은 正時에 조교들을 데동하시고 교실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시작하신다. 감히 늦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이것들은 恩師님의 權威와 自由와 哲學이 넘쳐 흐르는 1950년대의 대학 분위기였다.

오늘날, 교수에 대한 권위와 존경의 風土가 아쉬운 이 大學街에서 그대가 추억 같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II. 기차 속의 시험

나는 이 대학의 멋을 無休講 多試驗의 花郎台 陸士教育에 집어넣으려고 한 적이 있었다. 測一과 競爭의 他律의인 大學教育에 自律과 情緒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1952년에 비판 없이 그메로 받아들여 온 철저한 美國式 教育制度의 하나이다. 每講義마다 每時間 日日試驗을 보고, 月末·期末試驗에 따라서 成績順으로 敎班을 편성하고, 點數가 나오는 데로 자리도 정해졌다. 하도 시험이 많아서 줄 줄여 줄 것을 요구해 보니 그 당시 외국 교수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은 실례를 일러 주었다.

메년 미국의 추석 때가 되면 西端台(West Point) 美陸士와 雁聖浦(Annapolis) 美海士의 측구시험이 열린다고 한다. 그 중간 지점인 필라델

피아市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때 뉴욕에서 응원하려고 달려가는 들뜬 기차 속에서도 그날의 밀린 日日試驗은 치뤄야 한다는 것이다.

무서운 敎育制度였다. 마치 어떤 戰爭이라도 준비하는 敎育 같이 느껴진다. 바로 敎育競爭이란 것이 이런 게 아니겠는가?

美·蘇가 宇宙競爭을 시작할 때 그것은 科學競爭보다도 士官의 敎育戰爭인 듯하였다. 결국 미국의 틀랜 중령과 소련의 까까린 비령의 對決이 되었다. 宇宙競爭이라는 國家利益의 最尖端에서 決死의 曲藝에 나서는 人材가 어느 쪽에서 더욱 우수하게 양성되었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公人을 길러 내는 敎育制度는 쉽지 않다. 최신의 미국 공군사관학교인 高春台(Colorado Spring)의 正門엔 크게 “Bring me men”이라고 써 붙여 있다. 祖國의 巨大한 山河에 어울리는 人材를 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계를 조작하는 과학교육보다도 理念을 존중하는 인문사회교육을 어느 나라보다도 強하게 士官敎育 속에 집어넣고 있었다. 이처럼 人材養成과 敎育競爭을 위한 大學의 敎育은 多樣하다.

그 후 나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환교수로 가 본격적이 있다.

Ⅲ. 豐隣瑞敎(Princeton)

巨大한 미국이 1950년대 후반에 驚氣의 患者가 된 일이 있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호가 달에 먼저 도착한 것이다.

“이제 저 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The moon does not belong to us!)”

이것이 그때 미국 국민들의 신음소리였다. 이때 얼굴이 제일 먼저 붉어진 곳이 바로 大學이었다. 그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대학이 ‘아인슈타인’이 있던 프린스턴이었다. 원자탄으로 우월했던 미국의 정치력이 무너지는 듯하여 체면이 서질 않았다. 그래서 뉴저지주 벌판의 은 科學研究所를 동원하여 또 다시 프린스턴의 물리학이 일어난 것이다. 일종의 과학의 大軍團이 동원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국의 우주인이 소련보다 먼저 달을 밟게 하여 大學의 使命을 다한 것이다. 이와 같이 知性的 大學이 조국의 운명과

生死를 같이할 수 있어야 되나 보다.

이 점에서 이 대학의 역사는 시작부터 달랐다. 바로 그 대학의 터가 美國 獨立戰爭의 最後의 激戰地이고, 그곳에서 勝利하여 獨立을 얻었으며, 그 첫 議事堂이 된 곳이 바로 지금의 大學本部 納소홀이다. 그 大學 總長室 앞의 대리석벽엔 전쟁터에서 戰死한 졸업생과 재학생의 高名大姓이 金字로 새겨져 있었다. 南北戰爭에서부터 한국전쟁, 월남전에까지 그렇게 많이도 아까운 나이에 名門의 大學生들이 가까이 싸우다 간 것이다. 마치 大學 總長은 그들의 永遠한 祭主의 心情으로 國家的인 이 大學을 끌고 가는 것이다.

멀리 숲 속에 보이는 塔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大學院이다. 그곳 內庭에 앉아 있는 銅像이 있다. 그 분은 35년 동안 大學院長을 하면서 이 大學院을 확장시키지 않은 공로로 그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다. 學園運營에서 소위 타산이 맞는 法科, 齒科, 醫科, 그리고 경영 등의 직업 대학원이 미국 전 대학에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분은 오직 기초과학원만을 튼튼히 육성하고, 그것을 지켜 온 고집스러운 공로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기초에서 오늘날 미국의 각 分野 人材를 길러낸 것이다. 무서운 敎育戰爭 속의 大學要塞과 같았다.

古塔의 鍾소리가 분수처럼 퍼지는 平和로운 이 學園 속에서 大學生들은 절여 놓은 배추와 같이 녹초가 되어 있었다. 火石(Frestone) 圖書館 속에서 뜨겁게 공부하고, Eating Club이라는 여러 가지 세클에서 上·下級生과 식사를 하며 國家的인 理念을 되새기면서 그들의 未來를 나누고, 밤에는 기숙사를 不夜城 같이 만들며 공부하는 데 지쳐 있었다. 이렇게 미국과 세계를 끌고 나가기가 힘든 것이다. 白人의 名門大學끼리의 敎育競爭은 이처럼 처절하다. 이 대학은 五千명 정도의 작은 대학이다.

敎育은 역시 他律의 메 속에 있다. 보다. 거의 1:5의 比率이 대학 교수와 학생을 무서운 學風에 몰아넣고 있다. 回甲이 넘은 교수, 세계적인 교수가 孫子들을 매질하는 듯하다. 두터운 ‘실라브스’ 속에 읽어야 할 책이 超人的 讀破力을 무자비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읽었느냐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敎育이었다. 학

생은 永遠한 罪人과 같았고 교수는 權威 있는 判事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시험치기 前에 'Reading period'라는 慈悲로운 自律學習 기간을 두 주일씩이나 주고 있었다. 이 시험이 끝나야 그리운 집으로 가는 것이다. 舍員이 기숙사 생활이다. 맥사스, 엘리바마뿐만 아니라 이 동네 부자집에 살아도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학업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방학하는 날에야 고향의 부모나 형제가 큰 웨건(Wagen) 차를 가지고 온다. 방학 때 더 읽어야 할 책을 싣고 나서 古色蒼然한 교정의 나무숲을 부모님께 구경시키 드리고 집을 향해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自律 속의 무서운 '教育力'이다. 이것은 他律 속의 效率의인 士官教育보다 훨씬 무서웠다. 역시 뛰는 자 위에 날으는 學校들이 이 強大國엔 더 많이 있었다. 그래서 世界的인 대학으로 이 學校들이 국가를 代表하여 教育競爭에 나서니 온 국민의 尊敬을 마음 속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오직 國家의 人材를 키워 人類에 貢獻하게 하는 理念뿐인 듯하였다. 이러한 大學은 세계의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다. 하이델베르크 古戰場의 독일 대학도, 奈破崙(Napoleon)이 만든 큰 대학들도, 늙은 大英의 대학 속에서도 必要으로 人材培養의 教育競爭은 치열하다.

IV. 美·蘇·日의 獨創性 競爭

'80년대는 教育改革의 時期가 되었다. 世界的인 國家들이 모두 21世紀를 위한 總力을 바로 새로운 教育 속에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의 소련 教育의 成長과 發展을 武器競爭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놀라고 있다. 국가의 위기가 바로 미국 教育에서 온다고 'Nation at Risk' 病을 앓고 있다. 最先進國 國民의 30%가 文盲에 가깝다고 하니 도대체 自由 속에서 美國 教育은 무엇을 했느냐는 猛省이다.

레이전 大統領까지도 아이들에게 집에서 TV만 보지 말고 숙제하라고까지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날 New York Times紙는 그레도 "美國 教育이 創造性을 강조해 왔기에 다른 나라를 앞서고 있다"고 크게 自慰報道를 하였다. 미국인은 大學에 들어가서부터 철저히 공부한다.

그러나 日本人은 大學入試까지는 優秀하지만 대학에서는 創造性이 우리만 못하다고 大書特筆한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다.

그 해, 1983년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쓰쿠바대학에 들러 왔다. 그런데 벌써 일본은 그 創造性의 問題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세계 제일의 創造性 教育을 일본이 해 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아니라 한술 더 떠서 日本의 教育理念은 장차 21世紀 教育競爭을 精神的으로 이미 對備하고 있었다. 나와 만난 어느 교수는 이 학교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私席에서 흘리는 말이 "우리는 中曾根 首相이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서로가 말하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기에 "아니, '그것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 웃으면서 그가 대답하기를 그 옛날의 철저했던 '師範學校'와 浩然한 '高等學校' 그리고 國家親 있는 '士官教育'이라고 한다. 最新進의 創造性 教育 속에 이러한 일본다운 골수의 復古精神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옛그제 世界的인 開放大學이고 人類科學에 貢獻하는 쓰쿠바大學의 한 教育學 教授가 나에게 와서 韓國 初等教育에서 國籍 있는 教育現場을 보여 달라고 했다. 「즐거운 학교생활」의 교과서를 이미 철저히 일본어로 번역하여 熟讀하고 찾아온 것이다. 나는 이것을 教育競爭의 序戰과 같이 느꼈다.

그러나 우리나라 教育은 初等到 갈수록 단단하고 強烈하였다. 그 발달하고 能動的인 교실 분위기에 일본인 교수도 나도 놀랐다. 참으로 自律 속의 「즐거운 학교생활」 교과서 그대였다. 그 옛날 植民地 時代의 小學生이었던 나도 이 시골의 국민학교 2학년생에게 압도되었다.

그러나 중학교의 教育熱은 이보다도 더욱 무섭다. 어느 일요일 아침 8時, 나는 한 시골 중학교에 갑자기 들어가 본 적이 있었다. 校庭의 停車場이 플라타너스 그늘 밑에 차일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수백 대나 이미 와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야고 하였더니 일요일에 공부하러 나온 학생들의 것이라고 한다. 美國 大學 圖書館 앞 뜰의 주차장보다도 더했다. 이 시골, 이름 없는 학교

교정엔 30리를 달러온 중학생들이 모여 들고 있지 않는가? 늦게 온 학생들의 책가방을 보니 뜨거운 도시락이 두 개씩이나 들어 있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은 간단했다. 서울의 대학에 들어가려면 중학교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교육열이 憧憬 속의 대학교로 쏠리고 있다. 이것은 등계몽계 일어나는 教育의 職雲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大學만은 이것에 超然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어린 가슴에 그리던 大學에 그들이 들어와서 아마도 첫 교실, 첫 강의에 失望하거나 앓을까 걱정이다. 아롱든 教育戰爭은 우리 대학의 문 앞에 이미 와 있다.

V. 地下의 大學과 非學風

解放 40년의 우리 大學은 많이도 변했다. 라일락 향기 속의 尊敬스러운 休講을 하였던 大學도 이제는 사라져 갔다. 3천명의 대학에서 갑자기 3만명의 대학으로 되었다. 왜 이리 엘리뜨가 많아졌는가? 小數가 大衆을 리드한다는 精銳概念은 大學 스스로가 이미 깨버렸다. 서울에 冠岳山 굴짜기의 人波, 延世大의 백양로, 高大의 앞마당은 구경만 하러 나와도 群衆과 같이 보이게 되었다. 하도 커지니 分校까지 만들었는데, 기숙사보다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통근 대학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마어마한 시설의 팽창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學位하고 돌아온 많은 교수가 誠心껏 휴강 없이 敎壇에 서도 워낙 1:40의 比率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서 敎授의 權威와 尊敬과 自由의 멋은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따금 大學 속에 남은 것은 大單位 敎養教室, 無秩序, 대중 연설 같은 교육중의 마이크 고장, …… 같은 것이다. 대학생들도 學問的 權威나 성적에 대한 壓力을 그다지 느끼지 않고 있다. 아직도 入學이 곧 卒業이어야 한다는 人材養成 形式은 우리 大學의 質과 量이 그렇게 달라져도 不變의 타부로서 妥協되어 尙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어려워야 하는 名門은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地上의 大學에 무서운 學風이 없으니

地下에 대학 씨름이 생기고 非學風의 운동이 활발할 수 있는 餘裕가 생기게 마련이다.

大學 總·學長들도 오히려 非學風에 더 關心이 있지 않은 學風을 振作시킬 餘裕가 없다. 在學時節에도 非學風의 學生은 오히려 特惠를 받는다. 아르바이트의 우선 알선, 學父母 訪問, 그리고 하늘 같이 높은 大學 敎授들과의 當당한 對話…… 등.

이 상테로는 도저히 國際的인 教育競爭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서관도 이따금 非學風의 研鑽場이 되고 있지 않는가?

VI. 講論이 強해야

우리 大學의 과잉 擴張과 과잉 보호, 그리고 과잉 寬容이 오늘의 無氣力한 우리 大學社會를 이룩하였다. 이제는 변명하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러나 大學의 萬古의 眞理는, 大學의 힘이란 講壇에서만 나온다는 것이다. 아무리 政治家, 新聞이, 社會가, 그리고 學父母가 탓을 하고 떠들어도 敎壇의 講論이 強해야 大學이 산다. 준엄한 敎授는 大學의 主力이고 象徵이기 때문이다. 불탄서軍이 독일을 쳤을 때 有名한 한 哲人이 홀로 남아 熱講하는 것을 보고 佛의 將軍이 “여기 사람 있네” 하였던 말은 지금도 大學의 神話로 남아 있다. 難攻不落의 敎授와 知性은 祖國의 生命이다. 大學은 總장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無名敎授의 教室이 強해야 대학이 유지되는 것이다. 데모중에도 地上의 大學을 強하게 再創 建해야 된다. 이 大學이 強해져야 40년 전동의 地下의 非學風도 없어지는 것이다. 데모하다가 도시간이 되면 우선 뛰어 들어오도록 大學의 敎壇을 높여야 한다. 거리에서는 獅子然하고 교실에서는 고양이만도 못하다면 그 學生은 장차 教育競爭의 現場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하루 빨리 大韓民國 大學生의 규격을 國際的으로 높게 形成해야 한다. 그들을 어른 같이 대하고, 어른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리광의 용서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서울의 대학이 그렇게 이 나라 秀才들이 모였다면 그들은 모름지기 視野를 넓혀서 世

界的인 牛津(Oxford), 劍橋(Cambridge), 豐隣大, 東京大, 그리고 何培菴(Harvard)와 더불어 겨누어야 할 것이다.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그리고 國家的 支援도 國家끼리 對決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未洽하다면 우리 大學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안일하게 겨우 國內 大企業에 就業만 하기 위해 있다면 참으로 이것은 理念 없는 生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VII. 教授의 五師風

教育競爭 時代의 大學의 改革은 時急하다. 그 必要性은 未來의 世界와 우리 社會가 요청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創造的 知性을 大學에서 높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大學의 道德性과 倫理 그리고 傳統을 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大學生의 心身이 剛健하게 育成될 수가 있을까? 그리하여 變動하는 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을 育成할 것인가? 또한 우리나라 大學에서 당당히 國際性을 涵養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가장 重要한 우리 大學校를 無氣力한 狀態에서 活力 있는 배움의 터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한 차례의 센 바람이 불어와야 할 것이다. 그 많은 바람 중에서도 나는 大學教授의 五大師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맞추어서 教授와 學生 그리고 學校行政이 意識의 改革을 일으켜야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수의 대우와 지위, 주변의 불합리, 휴강 없이 10여 學點을 강의해야 하는 難行 苦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우선 우리 교수의 主人意識이 없이는 우리 교수들 자신의 存在意義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 바람을 스스로 일으켜야 한다. 이것은 오직 우리 大學社會에 活力을 주는 문제이다.

첫째로 ‘無理念 唯生存’하는 校風을 불어 없애야 한다. 大學 속에 理念 없이 生存만 하려는 無事安逸을 排擊해야 할 것이다. 大學은 好學에 뜨거워야 한다. 교수, 학생, 학교가 教育競爭에서 生存하려면 그 大學 나름대로의 教育理念이 강해야 되는 것이다.

둘째로, ‘無自尊 唯隸屬’을 없애야 한다. 大學의 自律은 바로 그 自尊에 있는 것이다. 그것 없이 隸屬만을 일삼는 教授나 學生과 學校는 大學文化를 비굴하게 만든다. 敎壇의 具體的인 尊嚴과 學問만이 自尊의 터전을 이룩한다. 政府나 理事會의 탓을 말고 敎室에서부터 강한 自律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無名聲 唯守職’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학문의 명성이 높아야 世界的 競爭을 할 수가 있다. 學生들의 質이 우수해야 名門大學이 되는 것이다. 職位나 學歷, 學閥을 重視하는 옛 껍질을 벗어 던지고 能力과 業績에 우선하는 風土를 만들어야 한다.

네째로, ‘無業績 唯我得’을 밀어내야 한다. 大學에 대한 정열과 업적은 하나도 없이 오직 私慾에만 사로잡히는 데서 主人 없는 大學이 생기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철저한 所屬感과 貢獻 그리고 參與로 大學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無主業 唯副業’해서는 안 된다. 교수와 학생이 모두 學問의 世界에서 自己天職과 本分과 義務에만 徹底해야 되는 것이다. 교수가 부업에 열중하고 학생이 길거리에만 나선다면 우리의 대학은 텅 비게 된다.

대학은 그 자체가 目標이고 至高의 價値이며 또한 우리 전체의 生命이어야 할 것이다.

이 五師風이 불지 않고서는 우리 大學은 永遠히 教育競爭의 前線에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이미 불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